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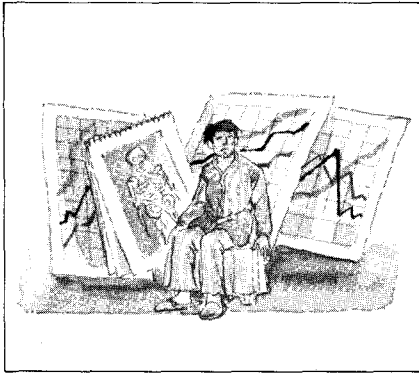
에이즈환자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그 댓가를 치루지 않도록 바라자

윤성혜/문화일보 과학문화부 기자

최근 국내 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 환자는 초기 감염증상으로 신경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끔씩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평형감과 운동균형이 정상이 아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생계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 에이즈환자는 생각끝에 과거 자신의 유일한 생존수단이었던 버스운전을 다시 시작했다. 「대형 참사를 빚을 지도 모르니 제발 그 직업만큼은 삼가해 달라」는 주치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의사의 중계로 어렵사리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자 그는 버스운전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흔히 「에이즈환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에이즈 양성 반응자들에 대해선 「비윤리적 성(性)생활에 대한 응분의 댓가」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에이즈환자들이 모는 차에 몸을 내맡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에이즈가 단지 감염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감하게 된다. 사람들은 일단 에이즈에 감

염되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한다. 감염원인이야 어쨌건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직장과 가족을 버린 채 지하로 숨기 바쁘다. 환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도 주위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발병도 하기 전에 세인(世人)의 따가운 눈총에 견디다 못해 일찌감치 생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비판해오던 이모군(21)은 지난 4월 14일 끝내 일기장에 한 많은 사연을 남기고 자살을 택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2일에는 역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에이즈에 감염된 이모씨(61)가 자신이 감염시킨 아내와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점차 고립화한 이들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응당 받을 수 있는 치료혜택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문제는 에이즈라는 병은 결코 감염 즉시 죽는 병이 아니라는 데 있다. 양성반응자의 절반



가량만 감염 후 8~10년에 걸쳐 에이즈로 이행된 후 최종적으로 환자로 발병하게 된다. 때문에 그 기간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환자의 대부분이 감염 후 얼마 안되어 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별도리 없이 감염사실을 숨긴 채 과거 밥벌이 현장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 때로는 그 직업이 앞의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인명에 커다란 불상사를 안겨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정은 우리와는 판이하다. 에이즈환자들은 이미 자신이 환자임을 떳떳이 밝히고 있다. 에이즈환자와 그들 가족들이 모여서 일종의 압력단체를 형성하는가 하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연대하여 그들의 입장과 권익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환자는 물론 환자가족들까지 사회로부터 부적절한 차별을 받게 되면 과감히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 에이즈 치료약 개발 제약회사들까지도 신약 가격 산정시에는 반드시 이들 압력

단체와 교섭을 거친 후 만족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아야만 한다. 최근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린턴은 지금까지 부시 공화당 정부가 에이즈 퇴치에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과는 달리, 일회용주사기, 콘돔의 공급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에이즈예방정책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이렇듯 에이즈는 이제 더 이상 동성연애자나 마약중독자들과 같은 괴집단의 일만은 아니라, 이성간의 성행위, 수혈 등을 통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인류공동의 질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향후 수년내에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전세계적으로 여성과 어린이가 그리고 신생아에게까지 확산되어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에이즈감염자가 공식적으로 2백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실제로 그의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지금도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감염자들에 대한 무정책으로 인해 어느새 그들의 고통이 하나씩 둘씩 양가품의 형태로 변해 바로 우리의 생활가까이 위협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에이즈 병 그 자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지식을 알리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에이즈환자에게 최신 치료의 혜택을 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울러 에이즈환자들이 얼마만큼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에이즈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